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심경섭* · 설동훈**

한국 대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은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까? 시월(William H. Sewell)과 동료들이 개발한 위스콘신 모형의 결론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 획득에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높은 수준의 직업적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결국에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의 직업 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직업 포부를 트라이만(Donald J. Treiman)이 개발한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사회적 자본 변수는 린과 듀민(Nan Lin and Mary Dumin)의 '직업위계를 이용한 사회적 자원 측정 방법'(position generator)을 적용하였고, 문화적 자본 변수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개념 정의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4년도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의 원자료인데, 유효 표본 수는 1,947명이다. 분석 결과, 성별, 인적 자본, 아버지 직업 등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 변수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장래 희망 직업을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핵심단어: 지위 획득, 위스콘신 모형, 직업 포부, 장래 희망 직업,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I. 서론

영화감독 김종현이 연출하고 영화배우 이범수가 주연한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2004)은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Pendant longtemps la personne qui dessine un rêve ressemble que le rêve finalement et lui disparaît.)"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과장 | ksshim@hrc.co.kr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 | dhseol@chonbuk.ac.kr

라는 앙드레 말로의 격언을 첫 장면에서 흑백 영상으로 보여주며 시작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이 영화의 주인공 감사용은 작은 키에 작은 손, 왼손잡이 투수로, 자기의 꿈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꿈인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 승리투수가 된다. 이 영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 또는 자신이 바라는 자신의 장래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 꿈을 달성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갖고 있다.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의 주인공 감사용은 프로 야구 선수를 꿈꾸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 교수, 전기·전자 엔지니어, 대통령, 국회의원,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가정환경과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따라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서 달라진다. 성장 과정에서도 한 가지 직업 포부를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초·중·고등학생 때의 꿈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학교급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한층 더 현실성이 높은 직업 포부를 갖게 된다. 대학생이 되면, 막연한 직업 포부는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고려하여 장래를 계획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여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좀 더 현실적인 직업 포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꿈은 크게 가지고 볼 일이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면 실제 그 꿈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머튼(Merton, 1948; 1968)은 그것을 ‘자기 완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라 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염원과 객관적 현실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학생은 자신의 장래 직업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설동훈, 2010).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대학생의 직업 포부는 노동력 공급자들이 원하는 직업 수요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정부 등 노동력 수요자들이 원하는 인력을 뽑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배정 과정(job matching process)은 구직자들의 원래 목표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또한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높이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에는 취업을 단념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난(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구직난(높은 실업률)이 병존하는 현상이 존재한다(설동훈, 2004). 사람들은 자신이 마지못해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눈높이와 근사한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생이 자신의 능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

의 희망직업을 선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희망직업을 대학생이 기대하는 장래의 사회적 지위 수준(높이)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장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의 장래 기대 직업은 자신의 능력, 관심분야,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여러 요인 중 가족 배경에 의한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사회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계급재생산 경향이 강화된다는 ‘계급구조화’(class structuration) 혹은 ‘계급결정화’(class crystallization) 이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Giddens, 1973; 설동훈, 1994), 가족 배경은 지위 획득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가족 배경은 사회 계급이나 계층으로 측정하여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계급 또는 계층 변수’로만 요약하기는 어렵다. 가족의 계급과 개인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이 서로 영향을 주며 동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 집안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대를 이어 나가라며, 의사가 될 것을 권유한다. 부모는 자식이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사회·문화적인 측면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대 직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속성, 사회계급, 인적 자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장래 희망직업과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은 현실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장래 희망 직업, 즉 직업적 포부수준(level of occupational aspiration)이 자신의 실제 첫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윌리엄 시웰(William H. Sewell)과 아치발드 할러(Archibald Haller) 및 알레한드로 포르테스(Alejandro Portes) 등이 제시한 위스콘신 모형(Wisconsin model)에 의하여 입증되었다(Sewell, Haller and Portes, 1969; Sewell, Haller and Ohrendorf, 1970). 위스콘신 모형은 피터 블라우(Peter Blau)와 오티스 더들리 던칸(Otis Dudley Duncan)이 제시한 ‘지위획득모형’에서 사용한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수준, 그리고 본인의 교육

수준과 같은 변수들에 “교육과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시월·할러·포르테스(Sewell, Haller and Portes, 1969)는 블라우·던칸(Blau and Duncan, 1967)의 지위획득모형에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1957년 미국 위스콘신 주 고등학생들의 직업·교육적 포부수준을 조사한 후, 7년 후인 1964년의 직업·교육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적 포부 수준은 첫 직업을 얻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육적 포부 수준은 실제 교육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교육 수준이 다시 첫 직업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연구결과는 확률적 선택(probabilistic choice) 이론에 의해 좀 더 지지받을 수 있다. 확률적 선택 이론에 의하면 포부수준이 현실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먼저 포부수준에 대하여 측정한 후, 이 측정을 실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이명진, 2004).

포부수준에 대한 다른 연구로는 매크맥(McCormack, 1996)이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매크맥은 1979년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다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10년 후인 1989년에 그 질문 대상자들을 다시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목표는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목표가 전혀 없었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명확한 목표를 기록했던 3%는 나머지 97%의 졸업생보다 평균적으로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국내 논문으로는 김양분·유한구·남궁지영(2004)의 학교 교육의 효과를 밝힌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수학(數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가족 배경과 개인의 특성은 학생의 포부 수준,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원(사회·경제적 수준, 부모 자녀 간 상호 작용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 교육 포부 수준이 한 학교급 높아지는 경우, 수학 학업 성취도가 5.460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양분 외, 2004).

포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점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큰 꿈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1. 지위 획득

모든 사회에는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그 계급을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다. 직업을 통해서 지위획득의 경로와 정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위획득이론은 부모의 직업지위와 자녀의 직업지위를 계량화하여 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이동을 고찰하는데, 사회이동을 각 개인의 지위획득의 결과로 간주한다. 기존의 이론들은 부모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직업지위에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교육이 다양한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Blau and Duncan 1967; Treiman, 1977).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것은 교육에 기초하여 직업지위의 획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위획득이론에서는 개인의 자질, 특히 교육에 기초하여 직업 지위의 획득이 이루어지며, 소득은 획득된 직업 지위에 자동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다.

2. 인적 자본

지위획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 변수는 '학력'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로 인하여, 고학력 사회로 접어들었다. 교육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고등학교 졸업생 100명당 80명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의 교육기회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질적 측면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²⁾.

교육은 부모의 사회계급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획득되는 성취지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단 획득된 학력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후 노동시장에서 직업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남춘호, 2003; 장상수, 2001; 방하남·김기현, 2002). 교육은 직업과 계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핵심 요인이지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된 가운데 교육의 양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불평등의 극대 유지'(Maximally Maintai

1) 한국사회의 대학교 진학률은 2005년 82.1%, 2009년 81.9%였다. 그것은 1995년 51.4%, 1999년 66.6%와 비교할 때 크게 상승한 것이다(통계청, 2006, 2010).

2) 가정 배경이 좋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위세가 높은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는 거의 해소되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에서는 여전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대학 진학에서의 남성 우위 현상은 주요 서구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김경근, 2009; 김경근·변수용, 2006).

ned Inequality: MMI) 가설에 의하면, 특정한 학력단계로의 이행에서 상층 계급의 이행률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지속되지만, 이행률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Raftery and Hout, 1993; Hout, Raftery and Bell, 1993).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 중·상층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나 명문대학 진학 등에 대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루카스(Lucas, 2001)의 ‘불평등의 효과적 유지’(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MI) 가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됨을 뜻한다(남춘호, 2003;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³⁾. 장상수(2000) 역시 가족배경이 좋을수록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교육은 직접비용이든 기회비용이든 간에 사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교육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학업성적이 계급별로 다르게 분포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지방대학 학생들의 평균 수준보다 크게 높았다. 입학 성적이 차이가 나는 대학교들 간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력(學歷)과는 구별되는 학벌(學閥) 효과도 존재한다. 학벌이란 특정 학과 또는 특정 학교 출신자가 어느 직업 혹은 특정 기업, 특정 집단 내에서 암묵적인 지위나 세력을 형성하여 그것을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하는 행위나 그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다. 간단히 말해서 출신 학교나 학력이 같은 자들이 기업이나 집단에서 배타적 무리 즉, 파벌을 형성하는 현상이나 그러한 파벌을 학벌이라고 한다. “명문대학 프리미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학벌 효과는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역기능으로 보인다.

3. 사회적 자본

전통적 지위획득모형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계급과 인적 자본에 국한되어 있던 지위획득에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3) EMI 가설에서는 학력성취를 둘러싼 경쟁이 양적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져 학력성취의 계급별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층계급은 자녀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교육수준의 양적 차이가 존재하면 양적 차별화를 통해, 양적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익이 미미하면 질적 차별화를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 요컨대, 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행에서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남춘호, 2003).

알아보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지위 획득과 교육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Lin, 2001; Stanton-Salazar and Dornbush, 1995; Valenzuela and Dornbusch, 1994; Hagan, Macmillan and Wheaton, 1996).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가 높고, 연대의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지위획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Lin, 200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연결망의 크기, 연결망의 강도, 연결망에서의 위치,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이라는 네 가지가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의 양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Bourdieu, 1986). 연결망의 강도와 연결망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연결망의 강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친밀감의 정도를, 연결망에서의 위치는 연결망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방적 연결망에서의 정보 전달 효과와 폐쇄적 연결망에서의 통제 효과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취업에서 '약한 연결의 힘'(strength of weak tie)을 강조한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버트(Burt, 1992)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개념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콜만(Coleman, 1988)과 포르테스(Portes, 1998)가 강조하는 '통제'(control)는 후자에 해당한다.

취업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취업 관련 정보의 획득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약한 연결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 취업 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버트(Burt, 1992, 2005)는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구조적 공백의 위치에 있는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린(Lin, 2001)도 사회구조 속에 자리매겨져 있는 자원(embedded resources)에 접근하기 위한 가교(bridge)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가 언급하고 있는 도구적 행동(instrumental actions)과 표출적 행동(expressive actions) 중에서 도구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Lin, 1999). 직업 포부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원을 얻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4) 린(Lin, 1999)은 도구적 행동을 경제적 보상, 정치적 보상, 사회적 보상과 같이 행위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파악하고, 표출적 행동은 행위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표출적 행동의 결과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생활에 대한 만족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정보, 즉 취업, 부동산, 결혼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직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교, 또는 구조적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을 아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보다 위신 있는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됨을 입증하였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정보는 직업 포부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자본을 많이 소유한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직업 포부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이다. 포르테스(Portes, 1998)가 지적하였듯이,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의 자유 제한, 하향 평준화하는 규범과 같이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대학생의 직업 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 문화적 자본

한 개인의 지위획득에서 문화적 자본 역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문화적 자본이 계급재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Bourdieu, 1984, 1986; DiMaggio, 1982; 최선헌, 2002b)와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몇몇 연구(DiMaggio, 1982; 장미혜, 2002) 등이 있다.

문화적 자본이란 부르디외(Bourdieu, 1986)가 제시한 개념으로 상이한 사회 계급에서 비롯되는 아동들의 불평등한 학력 성취도를 학업에서의 성공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도중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문화적 자본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지배 구조 혹은 계급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산되는지, 피지배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그들의 지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디마지오(DiMaggio, 1982)는 학교 교육의 성취도가 문화적 자본에 기초하여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받아들여, 문화적 자본을 소유한 학생들은 학교의 행동규칙에 잘 적응하며,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문화적 자본이 계급의 재생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셋별, 2002b; 장미혜, 2001). 문화적 자본은 상류계급 여성과 다른 여성 집단을 구분 짓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인 위치를 재생산함으로써 상류계급의 문화적 자본을 전수하고 계급적 경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최셋별, 2002a: 140-141). 또한 문화적 자본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장미혜, 2002; 장상수, 2008). 장미혜(2002)는 문화적 자본이 학교 내에서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그 밖의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한 개인의 교육적인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라고 보고, 부모의 문화적 자본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상수(2008)도 문화적 소유물, 가정의 교육자원, 문화적 소통 등으로 조작화한 부모의 문화적 자본은 자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계급 재생산은 문화적 자본과 같은 형태로 은폐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자본은 상류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 문화적 자본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본의 뒷받침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학교 교육 내에서도 계급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 상류계급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수월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다 더 잘 개발시켜 나간다는 것이다(DiMaggio, 1982; 장미혜, 2002). 그러므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류계급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기대수준에서 다른 계급의 자녀들과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최셋별(2002a, 2002b)의 주장과 같이 상류계급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다른 계급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처럼 연속변수가 아니라,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산변수(離散變數)로 파악한다.

Ⅲ. 자료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4년 전국 8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의 원자료다(홍두승·설동훈 편, 2004). 본 조사의 전체 표본 수는 8개 대학의 대학생 2,075명이다. 각 대학교별 표본 수는 국민대 172명, 대구대 242명, 서울대 273명, 서울시

립대 288명, 연세대 248명, 이화여대 315명, 전북대 279명, 한림대 258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대상은 2004년도 1학기에 각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재학생이며, 휴학생은 제외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 수는 1,947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무응답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본 자료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료의 구조를 재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통계청의 계열별 대학 재학생을 자료의 모집단으로 하여, <표 1>에 있는 것처럼 전공별로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인문전공 850명, 비의학 자연전공 807명, 예체능전공 195명, 의학전공 95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본인의 직업 포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이며, 독립변수는 성, 연령, 아버지 직업, 대학수준, 대학 전공(인문, 비의학 자연, 의학, 예체능 전공), 전공 학습시간,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변수이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표 1> 표본조사 자료의 가중치 부여 내역

(단위: 명)

(가) 모집단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전체
인문계	24,900	1,344	148,600	174,844
사회계	54,322	4,914	282,902	342,138
자연계	135,343	6,779	348,845	490,967
예체능계	14,732	889	109,971	125,592
의약계	15,371	-	45,785	61,156
사범계	20,196	-	39,427	59,623
계	244,668	13,926	936,103	1,194,697
(나) 표본집단	모집단	표본집단	가중치	최종표본집단
인문전공	547,563	1,114	0.762968	850
비의학 자연전공	520,009	658	1.226712	807
예체능전공	125,592	119	1.638221	195
의학전공	61,156	56	1.695152	95
계	1,254,320	1,947	-	1,947

주: 모집단의 사범계는 인문 전공(0.513)과 비의학 자연전공(0.487)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인문 전공과 비의학 자연전공에 포함하였다.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의 직업 포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과 독립변수의 아버지 직업, 사회적 자본 변수에서는 트라이만(Treiman, 1977; Ganzeboom, De Graaf and Treiman, 1992)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부표〉 참조).⁵⁾ 직업 포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 아버지 직업 변수는 선택지에 전문직 직종에서부터 미취업 직종까지가 제시된 직업 분류표를 작성하여 질문하였으며, 각 직업들에 트라이만의 SIOPS 점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SIOPS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미취업 직종의 학생, 주부, 의무복무 군인(사병·전경), 무직(실업자), 정년 퇴직·연금생활자, 기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업 중 최고 점수는 의사, 대학교수로 78점, 최하 점수는 기타 농어민으로 14점이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 사회계급 변수, 인적 자본 변수, 사회적 자본 변수, 문화적 자본 변수의 다섯 가지로 대별된다.

1) 사회 인구학적 변수: 성별과 연령

○성별: 가변수로 남자에 1, 여자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연령: 출생 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 사회계급 변수

○아버지 직업: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SIOPS) 점수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다.

3) 인적 자본 변수: 대학수준과 전공 및 전공 학습시간

○대학수준: 대학수준 변수는 조사를 실시한 8개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를 중심으로 2004년도 수능점수를 파악한 후, 점수를 10점 단위로 묶어 순위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에서 순위를 빼서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다(〈표 2〉 참고).

5) 최태룡(2002)의 1983년 조사에서는 상관계수 값이 0.865, 2001년 조사에서는 상관계수 값이 0.863으로, 트라이만의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 전공은 계열별, 단과대학별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공을 크게 인문전공, 의학전공, 비의학 자연전공, 예체능전공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전공 중 의학전공은 단과대학이 의과대학인 응답자들이다. 이렇게 분류한 전공 변수를 회귀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변수로 만들었다. 인문전공은 인문전공 1, 나머지 0, 비의학자연전공은 비의학자연전공 1, 나머지 0, 예체능전공은 예체능전공 1,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준변수는 의학전공이다. 의학전공을 기준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다른 전공에 비해서 의학전공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직업이 의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공 학습시간: 전공 학습시간 변수는 “전공 공부에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소비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였으며, 여덟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전혀 안 한다’ 0, ‘10분 미만’ 10, ‘10분 이상 30분 미만’ 2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9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5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10, ‘4시간 이상’에 240의 값(분 환산 중앙값)을 부여하였다.

<표 2> 대학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한 2004학년도 정시 입시 지원 기준

대학교	학과(학부)	수능점수	순위
국민대	영어영문학과	307	5
대구대	서양어문학과군	217	8
서울대	인문계 I	363	1
서울시립대	영어영문학과	332	3
연세대	인문계	350	2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330	3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295	6
한림대	어문학부	255	7

주: 전국 대학의 영어영문학과 또는 그것이 소속된 학부를 중심으로 지원 가능 수능점수를 파악하여, 10점 단위로 묶어 순위를 정하였다. 그 결과 공동순위도 발견되었다. 분석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인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9-순위로 계산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료: 중앙교육, 『전국대학지원·배치 참고표』 2004.

4) 사회적 자본 변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사회적 자원 측정 방법’(name generator)과 ‘직업위계를 이용한 사회적 자원 측정 방법’(position generator)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name generator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게 한 뒤,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position generator는 주요 직업들을 나열해 놓고, 그 직업들에 대하여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의 position generator를 적용하였다.

린과 듀민(Lin and Dumin, 1986)은 던칸(Duncan, 1961a; 1961b)의 SEI 점수를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였지만, 1960년대 미국의 직업을 가지고 조사한 던칸의 SEI 점수를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린이 사용한 던칸의 SEI 점수에서는 교사의 점수가 44.2점으로 판매원·외판원, 사무기계 조작용보다도 낮았으며, 보험설계사(66.0점), 비서(61.9점)의 점수는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사의 점수가 보험설계사, 비서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라이만의 SIOPS 점수에서는 교사가 61점으로 보험설계사(50점), 비서(53점)의 점수보다 높다. 그러한 이유로 던칸의 SEI 점수 대신 트라이만(Treiman, 1977)의 SIOPS 점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을 복수로 응답하게 하여, 트라이만의 SIOPS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점수를 반올림하였으며, 10으로 나누어 <표 3>의 값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값 중 같은 값들은 하나의 값으로 묶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전문 기술 엔지니어, 경영자는 모두 7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응답자가 세 가지 직업에 모두 응답한 경우, 21이 아닌 7이라는 값 하나만을 부여했다. 같은 값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알고 있을 경우에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지위의 직업에 값을 높게 준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점수를 모두 합쳐서 사회적 자본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모두 합쳐서 사용한 것은, 다양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마당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높은 지위의 사람을 알고 있을 경우에 점수가

<표 3> 사회적 자본 변수의 측정

ID	직업종류	Lin	Treiman	표준국제직업분류	값
1	변호사(판검사, 회계사, 변리사 포함)	92.3	73	121 변호사	7
2	전문 기술 엔지니어	86.9	65	0023 전기, 전자 엔지니어	7
3	경영자	75.1	65	0211 총괄관리자	7
4	기업 과장	70.6	60	02192 기업과장	6
5	자영업자	62.0	48	041 도소매 자영업자	5
6	노동조합 간부	59.8	50	02196 노동조합간부	5
7	교사	44.2	61	013 교사	6
8	보험설계사	66.0	50	0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5
9	비서	61.9	53	03211 비서	5
10	판매원, 외판원	49.4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3
11	사무기계 조작원	45.0	43	03930 하급사무원	4
12	하급 사무원	44.0	43	03930 하급사무원	4
13	조장, 반장	49.7	46	0700 생산감독	5
14	숙련공	44.0	46	0700 생산감독	5
15	기계정비공, 카센터수리공	27.0	43	084 기계공, 수리공	4
16	기계운전공, 기계제작공	21.0	38	072 금속가공처리공	4
17	경비원, 순찰원	18.0	25	05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사자	3
18	웨이터, 바텐더	17.0	21	0532 웨이터, 바텐더 및 관련종사자	2
19	수위, 집운반원	12.7	22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2
20	단순노동자, 건설노동자	7.9	18	0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동자	2
21	농어민	9.0	20	0621 일반 농업노동자	2

자료: Lin and Dumin (1986: 374); Duncan (1961b: 155); Treiman (1977: 235-260).

높게 나타나고, 다양한 계급을 고루 알고 있을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이 방법은 자신과 관계된 개인이 소유한 자본의 양과 연결망의 크기에 의한 효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5) 문화적 자본 변수

문화적 자본 변수는 부르디외(Bourdieu, 1986)의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고안한 지표, 즉 부모 혹은 가족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박사학위가 있다”, “외국어를 2개 이상 구사 한다”, “고등고시나 공인회계사 시험 등에 합격한 적이 있다”, “전시회·공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하거나, 미술품을 구입한다”라는 네 가지 문항을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한 것

은 문화적 자본의 경우 한 가지 형태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화적 자본은 개개인들의 취향에서부터 학위증명서와 같은 제도화된 형태까지 그 범위가 넓게 존재하므로,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문항을 가지고 측정해야 한다. 각 문항의 응답지는 ‘그렇다’와 ‘아니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에 ‘그렇다’ 1, ‘아니다’ 0으로 재부호화한 다음 합산을 하였다. 합산한 점수가 0, 1일 경우에는 0으로, 2점 이상일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문화적 자본을 이분변수로 만든 것은 개념상 소유 여부가 관건이지, 그 소유 정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V. 분석

1. 상관관계분석

〈표 4〉는 직업 포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므로,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는 종속변수별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의학전공은 전공 변수의 기준 집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먼저 직업 포부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수준과 아버지의 직업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학습시간이 높아질수록 직업 포부 점수가 높다. 그러나 의학 전공과 비교할 때 다른 전공의 직업 포부 점수는 낮았다. 대학수준에 따라 직업 포부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고학력 사회로 변화하면서 단순히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어느 대학교에 입학하느냐가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루카스(Lucas, 2001)의 EMI 가설이 지지됨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 학습시간이 길수록 직업 포부 점수가 높은 것은 학업성적이 취업과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취업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학업성적이며, 학업성적이 높을 경우 직업포부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 학습시간이 긴 학생의 경우에는 전공뿐만이 아닌 취업과 관련된 영어, 자격증 등의 공부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능성도 높다.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도 직업 포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

<표 4>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표(N=1,57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직업 포부	1.000											
(2)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	0.418 ***	1.000										
(3) 성별	0.027 ***	-0.293 ***	1.000									
(4) 연령	-0.001 ***	-0.152 ***	0.369 ***	1.000								
(5) 아버지 직업	0.199 ***	0.252 ***	-0.110 ***	-0.042 **	1.000							
(6) 대학수준	0.273 ***	0.231 ***	-0.064 ***	-0.035 *	0.255 ***	1.000						
(7) 인문전공	-0.081 ***	-0.029 ***	-0.136 ***	-0.092 ***	0.020	-0.029	1.000					
(8) 비의학자연전공	-0.040 *	-0.076 ***	0.200 ***	0.118 ***	-0.053 **	-0.023	-0.747 ***	1.000				
(9) 예체능전공	-0.059 ***	-0.001 ***	-0.094 ***	-0.015 ***	-0.005	0.082 ***	-0.291 ***	-0.259 ***	1.000			
(10) 전공 학습시간	0.096 ***	-0.003 ***	0.077 ***	0.202 ***	0.072 ***	0.061 ***	-0.130 ***	0.002	0.186 ***	1.000		
(11) 사회적 자본	0.052 **	0.008	0.003	0.040 *	0.076 ***	0.034 *	0.025	-0.006	-0.013	0.040 *	1.000	
(12) 문화적 자본	0.098 ***	0.128 ***	-0.104 ***	-0.064 ***	0.269 ***	0.109 ***	0.056 **	-0.095 ***	0.062 ***	0.010	0.006	1.000
평균	62.415	63.135	.477	21.704	52.741	4.739	0.456	0.400	0.092	81.961	15.201	0.138
표준편차	10.712	10.770	.500	2.206	14.377	2.345	0.498	0.490	0.289	72.695	6.013	0.345

주: 1) * p<0.10, ** p<0.05, *** p<0.01

2) 성별 가변수는 남자1, 여자 0으로 하였다.

3) 전공의 기준변수는 의학전공이다.

기로 한다. 아버지 직업과 대학수준 변수는 이모형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업 포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의 직업 점수가 낮았는데, 그것은 장래 기대계급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공에서는 비의학 자연전공만이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 문화적 자본 변수는 직업 포부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높아졌지만, 사회적 자본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가족적 배경이 좀 더 중요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전공 학습시간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전공 학습시간이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의 직업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2. 직업 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상관관계분석은 두 변수의 관계의 정도만을 나타내고,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회귀분석은 단순선형회귀모형보다 종속변수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찾아내고, 이 관계식의 정확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표 5〉는 직업 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모형 1, 2, 3, 4는 단계별로 변수를 추가해 가면서 분석한 것이다. 이모형들은 직업 포부를 각각 4.3%, 20.5%, 20.7%, 20.8%를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의 모형간의 R제곱 변동이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 모형 4이므로, 모형 4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 5〉 직업 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N=1,797)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절편	54.996 ***		67.541 ***		66.768 ***		66.964 ***	
성별: 남자	1.314 **	0.062	1.225 **	.057	1.226 **	0.058	1.276 ***	0.060
연령	-0.057	-0.012	-0.063	-0.013	-0.069	-0.014	-0.066	-0.014
사회계급: 아버지 직업	0.153 ***	0.205	0.085 ***	0.114	0.083 ***	0.112	0.076 ***	0.102
인적 자본:								
대학수준			1.108 ***	0.243	1.103 ***	0.242	1.100 ***	0.241
전공(준거: 의학전공)								
인문전공			-15.636 ***	-0.728	-15.743 ***	-0.733	-15.773 ***	-0.734
비의학 자연전공			-15.492 ***	-0.718	-15.568 ***	-0.721	-15.557 ***	-0.721
예체능전공			-17.327 ***	-0.476	-17.393 ***	-0.478	-17.498 ***	-0.481
전공 학습시간			.011 ***	0.075	0.011 ***	0.073	0.010 ***	0.072
사회적 자본					0.075 **	0.042	0.075 **	0.042
문화적 자본							1.163 *	0.038
R ²	0.043		0.205		0.207		0.208	
수정 R ²	0.042		0.201		0.203		0.204	
R ² 변동	0.043		0.162		0.002		0.001	
F값	27.101 ***		57.628 ***		51.752 ***		46.916 ***	
F값 변동	27.101 ***		72.692 ***		3.981 **		2.896 *	

주: * p<0.10, ** p<0.05, *** p<0.01

전공이 직업 포부 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변수들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전공, 비의학 자연전공, 예체능전공 각각의 표준화 계수는 -0.734 , -0.721 , -0.481 였다. 세 전공 모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기준변수로 사용된 의학전공과 비교한 상대 값이기 때문이다. 의학전공의 경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이 대부분 의사라는 직업으로 귀결된다. 대학 전공 중, 예체능전공이 비의학 자연전공과 인문전공보다 의학전공과 차이가 적었다. 이것은 최셋별(2002a)이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서양음악 전공자들을 상류 계층으로 분류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서양음악 전공을 뒷받침할만한 가정 배경”을 근거로 제시한 방식을 원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 “예체능 전공을 뒷받침할만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예체능 전공자의 직업 포부 점수는 다른 전공보다 의학 전공과 차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수준과 아버지 직업 변수는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버지 직업 점수가 높아질수록 직업 포부 점수가 높아졌다. 이것은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며, 한국사회에서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지가 직업지위 결정에 중요하다는 EMI 가설을 지지한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직업 포부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집안의 경제적 수준과 계급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공 학습시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업 포부가 대학수준, 전공, 전공 학습시간과 같은 인적 자본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음을 입증한다. 하지만 성별 변수는 상관관계분석과는 그 결과가 다르다. 성별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 강도가 약화되거나 은폐됨을 알려주는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모두 직업 포부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직업포부 수준에서는 <표 5>의 모형에서와 같이 자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 즉 대학수준, 전공, 전공 학습시간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크지만,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정보 취득이다.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취업에서 중요하다. 직업 포부와 관련해서 보면, 해당 직업에 대한 핵심적 정보는 어떤 사람의 기대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은 장래 취업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직업 포부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 포부는 문화적 자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문화적 자본이 하나의 취

향(taste)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계급 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층계급의 문화를 체화하고 있을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업성취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직업 포부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적성과 같은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계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을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

<표 6>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이다. 모형 4는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full model)이고, 모형 3은 최소의 독립변수로 최대한의 설명력을 가진 최적모형(optimal model)이라 할 수 있다. 두 모형 간의 R제곱 변동이 F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모형 3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전공과 성별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 점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전공 중 예체능 전공은 직업 포부 모형에서와 같이 다른 전공보다 의학전공과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직업 점수, 대학수준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표 6>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N=1,571)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β	b	β	b	β	b	β
절편	57.100 ***		65.369 ***		65.659 ***		69.717 ***	
성별: 남자	-5.790 ***	-0.269	-5.782 ***	-0.268	-5.727 ***	-0.266	-5.411 ***	-0.251
연령							-0.193	-0.039
사회계급: 아버지 직업	0.167 ***	0.223	0.123 ***	0.164	0.114 ***	0.153	0.115 ***	0.154
인적 자본:								
대학수준			0.789 ***	0.172	0.782 ***	0.170	0.780 ***	0.170
전공(준거: 의학전공)								
인문전공			-10.422 ***	-0.482	-10.479 ***	-0.485	-10.451 ***	-0.483
비의학 자연전공			-9.805 ***	-0.446	-9.800 ***	-0.446	-9.725 ***	-0.442
예체능전공			-11.000 ***	-0.295	-11.115 ***	-0.298	-11.005 ***	-0.295
전공 학습시간							-0.001	-0.004
사회적 자본							-0.003	-0.002
문화적 자본					1.363 *	0.044	1.329 *	0.043
R^2	0.135		0.207		0.209		0.211	
수정 R^2	0.134		0.204		0.206		0.206	
R^2 변동	0.135		0.072		0.002		0.001	
F값	122.300 ***		68.207 ***		59.046 ***		41.609 ***	
F값 변동	122.300 ***		35.742 ***		3.439 *		0.939	

주: * p<0.10, ** p<0.05, *** p<0.01

여기에서는 본인의 직업 포부 모형과는 다르게 성별의 효과가 전공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대계급에서 배우자의 직업에 의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연령 변수는, 상관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중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문화적 자본이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계급은 자신의 직업과 배우자의 직업이 결합되어 결정된다. 자신의 직업 포부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데 반해,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은 자신의 계급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자신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어느 계급에서 어떠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자신의 배우자 직업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설명은 전공 학습시간과 사회적 자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의해서 지지된다.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 지위획득모형에서 사용해온 변수들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기대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업적 지위의 기대수준, 다시 말해서 직업 포부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인적 자본과 아버지 직업, 성별 등 기존 연구 성과에서 제시해 온 변수들 역시 기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대학교 간의 서열이 장래 직업 지위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직업 포부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얻으려는 심리적 열망이다. 직업 포부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종사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미리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즉 가교 혹은 구조적 공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친인척 중에 그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여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고위 직종의 핵심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고위 직종을 자신의 장래 희망 직업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같은 고위

직종 중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려 준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변수가 직업 포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변수가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가정배경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화적 자본은 직업 포부와 장래 희망하는 배우자 직업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문화적 자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계급 재생산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의 직업을 원할 것이다. 그것은 예체능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의학전공과 차이가 적은 것에 의하여 지지된다. 또한 장래 기대하는 배우자 직업에 문화적 자본이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직업을 통해서 계급이 재생산됨을 보여준다. 계급은 자신의 직업과 배우자의 직업이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상층 계급의 결혼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들 수 있다.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문화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업 포부와 장래 희망하는 배우자 직업의 기대수준이 높다.

〈참고문헌〉

- 김경근 (2009)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통계청 통계개발원, 91-98.
- 김경근·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양분·유한구·남궁지영 (2004) “중학교 교육 수준 분석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200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네트워크 사회의 조사윤리》 한국조사연구학회, 89-102.
- 남춘호 (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4(2): 5-43.
- 매킨(M. McCormack) (1996) 구은영 (역)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길벗.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4.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2) 《2002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설동훈 (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간 사회이동, 1978-1989년: 생산직과 사무직의 남·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237-278.
- _____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4)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 노동력 부족의 개념과 측정” 《한국인구학》 27(1): 121-146.
- 양은경·이상길·장미혜·조은·주형일·홍성민 (2002)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 여유진·김수정·구인회·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명진 (2004) “확률적 선택론: 선거연구에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200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네트워크 사회의 조사윤리》 한국조사연구학회, 103-110.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 _____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2.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4): 671-710.
- _____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장원섭 (1997) 《교육과 일의 사회학》 학지사.
- 중앙일보 (2010) “최근 5년 새 생존 위한 발버둥 뚜렷...현실적이지만 진보 성향 훨씬 많아” 2010년 7월 27일자.
- 최셋별 (2002a)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한국의 서양고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5.
- _____ (2002b)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자본의 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양고전음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 14(3): 97-129.
- 최태룡 (1983) “직업위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연구》 7: 143-163.
- _____ (2002) “직업위신의 변화” 김경동 편, 《직업과 노동의 세계》 박영사, 29-58.

- 통계청 (2006) 《2005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_____ (2010) 《200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홍두승 (1983)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범문사.
 _____ (1987)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_____ (1992) “분배적 정의와 형평의식” 황일청 편,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141-170.
- 홍두승·설동훈 편 (2004) 《2004년도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국민대학교, 대구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실습팀.
- Bian, Y. (1997) “Br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Connection, Bridge, and Job Search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3): 336-385.
- Blau, P. M. and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4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6): 1309-1335.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1.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for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DiMaggio, P and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Duncan, O. D. (1961a)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s” pp. 109-138 in *Occupation and Social Status*, by Albert J. Reiss, Jr., with Otis D. Duncan, Paul K. Hatt and Cecil C. North,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61b)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oeconomic Index” pp. 139-161 in *Occupation and Social Status*, by Albert J. Reiss, Jr., with Otis D. Duncan, Paul K. Hatt and Cecil C. North, New York: The Free Press.
- Ganzeboom, H. B. G., P. M. De Graaf, and D. J. Treiman (1992)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1(1): 1-56.
-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New York: Harper and Row.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Social Structure and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agan, J., R. Macmillan, and B. Wheaton (1996) “New Kid in Town: Social Capital and The Life Course Effects of Family Migration in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3): 368-385.
- Hout, M., A. E. Raftery, and E. O. Bell (1993) “Making the Grade: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25-1989” pp. 25-49 in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edited by Yossi Shavit and Hans-Peter Blossfeld, Boulder, CO: Westview Press.
-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 22(1): 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 and M.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365-385.
- Lin, N., W. M. Ensel, and J. C. Vaughn (200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ffective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106(6): 1642-1690.
- Merton, R. K. (194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The Antioch Review* 8(2): 193-210.
- _____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Raftery, A. E. and M. Hout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19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 Sewell, W. H., A. O. Haller, and A.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 Sewell, W. H., A. O. Haller, and G. W. Ohlendorf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6): 1014-1027.
- Stanton-Salazar, R. D. and S. M. Dornbusch (1995)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formation Networks Among Mexican-origin High School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68(2): 116-35.
- Treiman, D. J.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Treiman, D. J. and K. Terrell (1975) "The Process of Status Attain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3): 563-583.
- Valenzuela, A. and S. M. Dornbusch (1994) "Familism and Social Capita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Origin and Anglo Adolescents" *Social Science Quarterly* 75(1): 18-36.

<부표> 직업 분류표와 표준국제직업위신척도 비교

구분	부호	직종	점수	표준국제직업분류
전문직	11	의사	78	061 의사
	12	약사	64	067 약사
	13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73	121 변호사
	14	대학교수	78	01310 대학교수
	15	작가, 예술가	57	0161 조각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16	언론인, 방송인	68	0174 프로듀서, 공연예술가
	17	종교인	54	0141 종교장교 종교인 관계된 구성원
	18	기타 전문직	57	019 기타 전문, 기술 관련 종사자
	관리직	21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	65
22		대기업, 은행간부(부장이상)	63	02193 대기업 부장
23		고급공무원(4급 사기관 이상)	64	020 입법공무원, 정부관리직 공무원
24		사회단체 간부(부장이상)	63	02197 상위 노동조합간부
25		군인(영관급 이상), 경찰(경정 이상)	63	10001 군 장교
26		기타 관리직	60	0219 기타 관리자
과학기술직	31	교사, 학원강사	61	013 교사
	32	간호사	54	00710 전문 간호사, 간호사
	33	건축사	72	00210 건축사
	34	엔지니어	65	0023 전기, 전자 엔지니어
	35	연구원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36	기타 기술직	57	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사무직	41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2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 대리, 평사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3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 과장)	60	02192 기업과장
	44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 행원)	43	03930 하급사무원
	45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6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	43	03930 하급사무원
	47	전화교환수, 집배원	44	038 전화 및 전신기 조차원
	48	군인(위관급, 하사관), 경찰(경감 이하)	40	05820 경찰
	49	기타 사무직	37	0399 기타 사무원
판매직	51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	48	041 도소매 자영업자
	52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	32	0451 판매원, 점원, 선전원
	53	소규모 상점 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4	외판원	28	045 판매원, 점원 관련 노동자
	55	부동산 중개인	50	0441 보험, 부동산 및 증권거래인
	56	행상, 노점상	24	0452 행상인, 외판원, 신문팔이
	57	기타 판매직	15	049 기타 판매 노동자
서비스직	61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요식숙박)
	62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21	0532 웨이터, 바텐더 관련 노동자
	63	이-미용실, 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	37	051 자영업자(요식숙박)
	64	이-미용실, 세탁소 종업원	30	05700 이발사
	65	청소부, 파출부	20	0552 파출부, 청소 관련 노동자
	66	수위, 경비원	22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67	기타 서비스직	31	059 기타 서비스 노동자
생산직	71	생산감독(주임, 반장)	46	0700 생산감독
	72	공장근로자(숙련공, 기능공)	46	0700 생산감독
	73	공장근로자(반숙련공)	43	084 기계공, 수리공
	74	공장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	38	072 금속가공처리공
	75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18	09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노무자
	76	고용 운전자(자동차, 중장비)	31	0985 자동차 운전자
	77	개인택시, 화물차 운전자	31	0985 자동차 운전자
	78	광원	34	0711 광원 및 채석원
	79	기타 생산직	38	0729 기타 금속가공 처리공
농어민	81	부농(2정보=6,000평 이상)	63	06111 부농
	82	중농(1~2정보=3,000~5,999평)	47	06110 농부
	83	소농(0.5~1정보=1,500~2,999평)	38	06112 소농
	84	빈농, 소작농(0.5정보=1,500평 미만)	30	06113 소작농
	85	농업노동자, 품일꾼	20	0621 일반 농업노동자
	86	축산, 낙농업자	26	0624 가축사육노동자
	87	선주	37	06411 배를 소유한 어부
	88	어부, 수산, 양식업자	32	0641 어부
	89	기타 농어민	14	0629 기타 농업, 축산 노동자

자료: Treiman (1977: 235-260).

Occupational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Kyoung-Sub Shim · Dong-Hoon Seol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occupational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ccording to Wisconsin model, the occupational aspiration of youth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his or her actual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choice implying that the more motivated with high-level occupational aspiration will obtain the higher level of occupation. The analysis for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attitude and lifestyle in Korea 2004, which was conducted against 1,947 respondent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tilized. The dependent variable for occupational aspirations was measured by the Standard International Occupational Prestige Scale (SIOPS) of Donald J. Treima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as well as demographic variables, socio-economic status, and human capital variables. Social capital variable was measured by the position generator scale of Nan Lin and Mary Dumin, and cultural capital variable was done to our original index.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are factors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on occupational aspiration, in addition to the well-known factors such as gender, human capital and the occupation of father.

Key Words: Status attainment, Wisconsin model, Occupational aspiration,
Prospective occupation,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